

삼성, 용인 1호 팹 2029년 가동… AI 반도체 증설전 속도

정부 국가산단 조성 일정 발맞춰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년 앞당겨 올 하반기 부지조성·2027년 착공 3GW 전력망·공업용수 공급 관련 마이크론·TSMC 증설경쟁 대응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호 생산공장(팹)의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

정부의 국가산단 초기 조성 방침에 맞춰 투자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와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증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보 시점을 최대 2년 앞당기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총 6기의 팹 가운데 1호기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거론되던 2030~2031년보다 1~2년 빠른 일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합동 점검회의'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남은 3년 반의 시간표다. 2029

년 가동을 역산하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되고 2027년 중 팹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 최첨단 팹 건설에는 통상

2년가량이 걸리는 만큼 토지 보상과 수용 재결,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인허가나 보상 절차가 늦어질 경우 초기 가동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생산시설 못지않게 전력·용수 인프라도 성과를 기를 변수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3기가와트(GW) 규모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초기 착공과 송전망 구축 일정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업용수 역시 단계별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용인 국가산단 완공 시점을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는 경쟁사들의 전방위 증설 공세가 자리한다. 마이크론은 2035년까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총 2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일본 히로시마 공장에 약 14조원을 투입해 차세대 D램과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나섰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 650억달러를 들여 첨단 파운드리 공장 3곳을 건설 중이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나스닥 미국 주식에탁증서(ADR) 상장을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하며 글로벌 생산거점 확대에 나설 기반을 마련했다.

1호 팹 가동이 앞당겨지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 시점도 함께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 소부장 기업들도 용인 거점 확보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장만 먼저 완성된다고 가동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용인 1호 팹 일정이 앞당겨질 경우 협력사 투자와 인프라 구축, 공급망 형성 시제도 함께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평택·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2030조원, 호남권에 400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배터리 3사, 전기차·ESS에 실적반등 기대

LG엔솔 2분기 영업이익 1133억
삼성SDI·SK온 적자폭 축소 전망
유럽 전기차·북미 AI 수요 확대

전기차 배터리 출하 회복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확대가 맞물리면서 하반기 국내 배터리 3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분기에 흑자 전환을 기록한 데 이어 삼성SDI와 SK온도 손실 규모를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5602억원, 영업이익 1133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직전 분기 2078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북미 ESS 물량과 원통형 배터리, 유럽 중저가 전기차용 파우치 배터리 출하 증가 등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LG에너지솔루션의 흑자 전환에 이어 삼성SDI와 SK온도 2분기 손실 규모를 줄이며 실적 회복 흐름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2분기에 매출 3조36704



억원, 영업손실 74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영업손실 3978억원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81.3% 감소한 수준이다. 손실 감소에는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비전기자용 배터리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백업유닛(BBU)에 쓰이는 배터리 판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SK온 역시 2분기에 적자 폭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조지아 공장에 공급되는 배터리 물량이 늘

어난 데다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으로 현지 출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유럽 전기차 판매 회복과 북미 ESS·데이터센터용 배터리 수요 확대가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5월 유럽연합(EU)의 순수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95만521대로, 전체 신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15.3%에서 20%로 높아졌다. 프랑스와 독일의 순수전기차 등록 대수 역시 각각 55.4%, 40.9% 증가해 유럽향 배터리 출하 회복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에서는 전력망용 ESS와 AI 데이터센터용 UPS·BBU 수요가 늘면서 비전기자용 배터리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삼성SDI는 데이터센터용 UPS와 BBU 판매를 늘리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연말까지 북미 ESS 생산능력을 50GWh 이상으로 확대해 현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원관희 기자 wkh@

LS일렉트릭, 2년 연속 임단협 무교섭 타결

노사, 미래 전략사업 투자 확대 공감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상생 협약

LS일렉트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임금 및 단체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글로벌 전력시장 호황에 대응해 직류(DC) 등 미래 전략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회를 선점하는 데 근로자와 경영진이 뜻을 모았다.

LS일렉트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임금·단체협약 위임 및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근로자-경영진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에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과 채대석 대표, 이호정 노조위원장,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맞춰 생산과 연구개발, 미래 사업 투자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이뤄졌다.

구자균 회장은 "지나해에 이어 올해도 회사를 믿고 대응적인 결단을 내려준 LS일렉트릭 노동조합과 임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근로자와 경영진이 한마음으로 초격차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직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가운데), 채대석 LS일렉트릭 대표(왼쪽), 이호정 노조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LS용산타워에서 열린 '임금·단체협약 위임 및 수출 12억달러 달성 기념 근로자-경영진 상생 협약식'에서 임단협 위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류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면 글로벌 전력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연속 무교섭 타결의 배경에는 실적과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이어나온 점이 작용했다. 성과에 따른 보상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속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다.

/원관희 기자

에코프로, 전기차 150만대분 니켈 확보

인니 1·2단계서 연 6만5000톤 확보
헝가리 양극재 공장과 공급망 연계

에코프로그룹이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를 통해 전기차 약 150만대 생산에 필요한 니켈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확보한 니켈을 헝가리 양극재 공장과 연계해 미국과 유럽의 통상 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달 3일부터 10일까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조달 목적, 사용 계획 등을 설명했다 고 12일 밝혔다.

조달 자금은 인도네시아 BNSI 니켈 제

련소 지분 투자 등에 활용된다. BNSI는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기업 PTVI(PT Vale Indonesia) 등과 추진하는 합작 사업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가 대주주로 참여한다.

BNSI 제련소에서 생산되는 니켈은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드라인상 'Non-PFE(비금지외국기관)' 원료로 분류돼 미국 시장의 배터리 소재 규제에 대응할 수 있다.

에코프로 그룹은 지난 4년간 인도네시아 1단계 사업에 약 8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만9000톤의 니켈 수급권을 확보했다. BNSI를 포함한 2단계 사업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만6000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두 사업을 통해 확보하는 니켈은 연간 총 6만5000톤으로 전기차 약 15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합친 국내 연간 자동차 내수 판매량에 육박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확보한 니켈은 지난 5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헝가리 데브레첸 양극재 공장과 연계된다.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에 연산 5만4000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인도네시아산 Non-PFE 니켈을 헝가리 공장에서 양극재로 생산해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CRMA)과 유럽연합·영국 무역협정(TCA) 등 역내 규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완성차 업체와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도 헝가리 공장을 통한 양극재 공급 방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관희 기자

상장사 84%, 상법 개정 후 이사회 운영 변화

대한상의, 상장사 300곳 조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시행 1년 만에 상장기업 10곳 중 8곳이 사내 검토 절차와 외부 자문을 강화하는 등 이사회 운영방식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전에 대한 검토가 한층 강화되면서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소송 우려와 법적 부담으로 투자와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마루거나 보류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

사' 결과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이 달라졌다는 응답이 84.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무·준법팀의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다.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고 이사별 찬반 의견과 사유를 이사회 의사록에 상세히 작성한다는 응답은 43.7%였다.

이 같은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9.6%가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원관희 기자